



기독교 미국개혁신교단(RCA) 동남부한인교회협의회는 2020년 연합부흥성회를 24일~26일 뉴저지 영광교회에서 개최했다. 봉헌송을 부르는 집회 참석 목사들과 장로들.

“우리 신앙, 진단→수술→회복해야 한다”

개혁신교단 동남부한인교회협의회 연합부흥성회 “뜨거웠다”

기독교 미국개혁신교단(RCA) 동남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원도연 목사)는 ‘너희가 살아나라’ (에스겔 37장 1-10절)라는 주제로 2020년 연합부흥성회를 24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뉴저지 영광교회(담임 정광희 목사)에서 개최했다.

강사 송용걸牧사는 첫 날 24일 집회에서 예레미야애가 2장 11-19절을 본문으로 ‘지나가는 자와 예루살렘의 딸’, 25일에는 열왕기하 13장 14-19절을 본문으로 ‘사는 길은 변화입니다’, 26일(주일)에는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본문으로 ‘사는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용걸 목사는 종신대학교 및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을 지냈다. 시카고헤브론교회를 개척하여 크게 성장시키며 섬기다 은퇴한 후에 한국으로 건너가 서울신천교회를 섬겼다. 현재는 Light House Movement 공동대표로 있다.

송용걸 목사는 “각자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고, 수술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목사는 직접 체험한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며, 회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말씀을 전했다. “10살도 되지 않은 제 아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데, 목사이고 아버지인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고백을 회중들 앞에서 했을 만큼 진솔하게 말씀을 전했다.

송 목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 진단해 보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을 했으면 회복되



강사 송용걸 목사

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눈물이 없다면,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있으면, 우리의 신앙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해야 옳다. 우리의 신앙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수술을 해서 고쳐야 한다.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하고,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매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며,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가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만큼, 무늬만 크리스찬들은 스스로의 신앙 상태를 진단하고, 고쳐야 할 것들을 고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날 집회는 전 회장 황성현 목사(한결교회)가, 둘째 날 집회

는 부회장 송호민 목사(한성개혁신교회)가, 셋째 날 집회는 회장 원도연 목사(시온제일교회)가 인도했다.

경배와 찬양은 한결교회 찬양팀, 시온제일교회 찬양팀, 영광교회 찬양팀이, 기도는 조성찬 장로(한결교회), 이관용 장로(한성개혁신교회), 김건일 장로(시온제일교회)가, 성경 봉독은 임해운 권사(뉴저지 영광교회), 김현경 권사(예향교회), 이혜숙 권사(시온제일교회)가, 특별 찬양은 김성욱 집사(새언약교회), 시온제일교회 성가대, 한성개혁신교회 성가대가, 말씀은 송용걸 목사가, 봉헌 기도는 이상섭 장로(새언약교회), 황성기 장로(은혜와평강교회), 김종용 목사(푸른초장교회)가, 봉헌송은 목사들과 장로들, 이지연 사모(한성개혁신교회), 한결교회 중창단이, 광고는 총무 김종국 목사(새언약교회), 주선종 목사(클로스터개혁신교회), 회계 정광희 목사(영광교회)가, 축도는 정창수 목사(뉴저지 영광교회 원로목사), 김학룡 목사(은혜와평강교회), 김병철 목사가 담당했다.

목사들과 장로들이 발군의 찬양 실력을 뽐냈다. 첫째 날의 봉헌송을 집회에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불렀다. 단 한 차례의 연습도 없었다. 그런데도 박수를 받기에 충분할 정도의 뛰어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7일 오전 10시 송용걸 목사가 인도하는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뉴저지 영광교회에서 열렸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